

ISO/TC34 (식품)WG7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관련제품검사법) 국제표준화회의

생물환경과 공업연구원 유경희
02) 509-7257 ghyu@ats.go.kr

□ 개 요

출장 목적

- 전세계적으로 GMO의 생산이 급증하여 GM 대두는 세계 총생산량의 36%, GM 옥수수는 7%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GMO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콩, 옥수수에 대한 GMO 표시제를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이에 WG7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GMO검사법 규격제정작업에서 우리나라의 검정방법이 ISO의 표준검정방법에 반영되어야 하는 절실한 목표와 실제로 ISO에서 제정되고 있는 GMO규격이 유럽의 검정방법을 기초로 구성됨에 따라 GMO 검정시 사용되는 표준물질이 유럽 표준 과학연구소(IRMM)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일본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물질(플라스미드)을 ISO GMO검정방법 표준물질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 하기로 함에 있다.

○ 기간 및 장소

- 2002. 5. 6~5. 7(2일간) / 방콕

○ 참석자

- 생물환경과 유경희 연구관

□ 주요 활동 내용 및 성과

국제 표준화기구(ISO)에서는 2000년부터 TC34 (식품)내에 GMO검출 작업반을 구성 운영하면서 GMO의 샘플링, 핵산 추출법, 핵산 정성·정량분석법, 단백질 분석법 등 6종의 규격에 대한 제정 작업을 수행 중이다. ISO는 또한 유럽표준화기구(CEN)와 1999년 비엔나 협약을 체결하여 GMO 검사법에 관한 규격제정작업을 CEN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WTO 하의 경제 무역환경의 세계화 추세속에서 국제적 표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GMO 검사법에 대한 국제 표준화 활동 역시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기술표준원은 민간전문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식약청 관계자와 함께 2002년 5월 6일부터 7일 양일간에 방콕에서 개최된 제 3차 WG7회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방콕의 3차 WG7회의는 한국 등 9개 회원국 대표단 21명이 참가하였고 우리와 일본은 공동으로 GMO 검사법에서 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s)에 관한 정의에 관해서는 범위를 넓게 확장시키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각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미드 표준물질 사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번 회의장 분위기는 ISO 표준규격이 유럽의 검사방법을 기초로 구성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비 유럽 국가들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며, 특히 미국은 몬산토사, 카길사 등 생산 판매업자가 회의에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은 GMO 상품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부정적인 시각을 고려하여, 새로운 용어(신 생명공학 관련제품 : Plant products derived from modern biotechnology)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였다. 그러나 유럽 회원국가의 반대

로 다음 제 4차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할 것을 약속하는 수준에서 정리가 되었다.

한편으로, 이번에 우리나라가 GMO검정분야 국제표준화 회의에 처음 참가한 것에 대하여 각 국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며, 우리나라가 곡물의 대량수입국가임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개발한 플라스미드의 GMO 검정 표준물질 채택을 위해 우리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대하여 매우 감사해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참가한 WG7회의에서 ISO의 GMO검정방법 표준화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ISO 등 국제회의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겸비한 국제전문가 양성 및 훈련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게 필요함을 느끼고 왔다.

